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330호 [주제 제25473호] 주제 105 (2016)년 11월 25일 (금요일)

위대한 김정은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제380대련합부대 지휘부를 시찰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제380대련합부대 지휘부를 시찰하시였다.

황병서동지, 최용해동지, 최영길동지가 동행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현지에서 조선인민군 제380대련합부대 부대장과 정치위원을 비롯한 대련합부대의 지휘관들이 맞이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맞이하는 대련합부대 지휘부에는 최고사령관기와 공화국기가 게양되어 있었다.

조국과 혁명에 대한 성스러운 책임감과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을 안으시고 끊임없는 선군혁명령도의 길을 이어 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꿈만같이 뵈옵게 된 부대장병들의 가슴은 한없는 영광과 행복으로 세차게 설레이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현지지도표식비와 혁명사적교양실, 연혁실을 돌아보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전리해안의 예지와 작전체구상에 따라 조직되었으며 위대한 장군님께서 몸소 찾아오시여 부대가 나아갈 길을 휘황히 밝혀주신 조선인민군 제380대련합부대에는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불멸의 행도업적 이 아로새겨져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귀중한 사적자료들을 주의 깊게 보시면서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한 명도와 세심한 보살피심에 의하여 대련합부대는 현대전의 공격파 방어에 다 준비된 강위력한 정예대로 자리났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1999년 2월 이곳 부대군인들과 군인가족들의 산악전투훈련을 보아주시고 훈련성과를 치하해주시며 그들과 함께 짹으신 기념사진을 깊은 감명속에 바라보시면서 대련합부대의 장병들은 부대를 대단히 중시하시며 걸음을 걸음 손잡아 이끌어 주신 우리 장군님의 크나큰 기대를 언제나 잊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 제380대련합부대가 지난

기간 조국보위와 사회주의건설에서 자랑찬 위훈을 세웠으며 특히 북부 피해복구전선에 급파되어 당의 명령 지시라면 산악같이 뛸쳐일어나 물들을 가리지 않고 기어이 해내고 아마는 우리 인민군대의 투쟁정신과 기풍, 전투적기질을 날김없이 과시하는데 적극 기여하였다고 하시면서 부대장병들의 공적을 높이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대련합부대에서 혁명사적교양실과 연혁실을 잘 꾸리고 그를 통한 교양사업을 짜고 끌고있는데 대하여 치하하시면서 군인들의 가슴마다에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행도업적, 부대의 자랑스러운 역사와 전통을 깊이 새겨주기 위한 교양사업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군인회관을 돌아보시면서 사람이 밥을 먹지 않고서는 살수 없는것처럼 혁명가에게는 사상정신적탕식이 있어야 한다고, 군인들을 사회주의조국수호의 길에서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않는 불굴의 투사들로 더욱 억세게 키우기 위해

서는 당시 제시한 5대교양을 강화하는데 계속 큰 힘을 넣어야 한다고 지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군사연구실에서 대련합부대장으로부터 대련합부대의 방어작전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신 다음 전투문건들을 검토해주시였으며 작전강습 등 여러 곳을 돌아보시면서 대련합부대관

부대들의 일무수행과 훈련실태, 경상적인 전투동원준비정형을 구체적으로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대련합부대의 지휘관, 참모부 일군들이 우리당의 군사전략전술사상과 주체전법, 항일무장투쟁과 지난 조국해방전쟁 경험을 깊이 연구하고 적들이 최근시기 갑행하고있는 전쟁방식, 군사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그에 따른 작전전술의 변화에 대하여 과고들어 모든 작전과 전투를 우리 식대로 해나갈수 있는 기묘하고 명활한 작전전술적방안들을 완성해나가고있는데 대하여 치하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모든 훈련을 실전과 같이 조직하고 훈련장

본사정치보도반



# 사회주의수호전의 전초선을 지켜선 주인된 자각과 책임을 다해나가자

## 협동별은 참된 주인들을 자랑한다

충청의 200일전투를 승리적으로 결속하기 위한 최후승리 전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는 사회주의전야에 뜻깊은 날이 밝아왔다.

위대한 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불후의 고전적으로 『농촌에서 농사를 자제로 짓는 운동을 벌펴대 대하여』를 발표하신 때로부터 30돐!

역사의 이날을 맞는 우리의 농업부문 일군들과 군로자들이 되어 이 땅에 더불어 울고웃으며 헌신을 나달을 가슴뜨겁게 들어켜 보고있다.

위대한 병도 자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표시해왔다.

『농촌에서 『농장포전은 나의 포전이다!』라는 구호를 통해 지원력을 발휘하고 농사를 자체로 짓는 운동을 적극 벌리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임무수행은 농민들에게 맞거친 기본혁명사업인 것만같은 농사는 마땅히 농민로자들이 주인이 되어 세심으로 지어아 한다고 하시며 농촌에서 농사를 자체로 짓는 운동을 벌여야 한다고 했던 것이다.

『농장포전은 나의 포전이다!』라는 구호를 통해 지원력을 발휘하고 농사를 자체로 짓는 운동을 확장하여 반대하는 측이 더 많았다.

시기보장을 생명으로 하는 농사일, 여러 가지 영농공정이 겹쳐 풀어가는 드마쁜 농사일을 이직은 부족한것이 많고 기계화도 높은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는 때마다 높이 높아지는 농사일로 농민들은 다시금 청감하였다.

농장포전은 나의 포전이다!』라는 구호를 통해 지원력을 확장하여 반대하는 측이 더 많았다.

그때 농장일군들이 가슴치며

고지!』라는 웨침이 그대로 울려오고 식황을 위한 두정은 조국을 위한 후생이라는 드높은 자각안고 한치의 땅도 묵이지 않기 위해 모든것을 다 바친 1950년대 애국농민들의 불굴의 루평정신이 세차게 나에게는 구호다.

이 나라 농업근로자들의 가슴마다에 주인된 자각을 때때로 주며 네대와 네대를 이어 더욱 힘 있게 울려져온 이 구호와 더불어 1950년대 애국농민들의 불굴의 루평정신이 세차게 나에게는 구호다.

이날을 맞는 우리의 농업부문 일군들과 군로자들이 되어 이 땅에 더불어 울고웃으며 헌신을 나달을 가슴뜨겁게 들어켜 보고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자체로 농사를 짓는에서 전국의 본보기농장으로 내세워 주신 운전군 운하 협동포장을 높고자.

『농장포전은 나의 포전이다!』라는 구호를 통해 지원력을 발휘하고 농사를 자체로 짓는 운동을 적극 벌리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임무수행은 농민들에게 맞거친 기본혁명사업인 것만같은 농사는

마땅히 농민로자들이 주인이 되어 세심으로 지어아 한다고 하시며 농촌에서 농사를 자체로 짓는 운동을 확장하여 반대하는 측이 더 많았다.

시기보장을 생명으로 하는 농사일, 여러 가지 영농공정이 겹쳐 풀어가는 드마쁜 농사일을 이직은 부족한것이 많고 기계화도 높은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는 때마다 높이 높아지는 농사일로 농민들은 다시금 청감하였다.

농장포전은 나의 포전이다!』라는 구호를 통해 지원력을 확장하여 반대하는 측이 더 많았다.

그때 농장일군들이 가슴치며

한 말을 울려라 사람들은 오늘도 잊지 않고 외우고 있다.

해방후 우리의 부모들이 지원로력을 받아 땅에 깨끗이 농사를 잘 짓었는가, 땅의 주인으로 내세워 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은덕이 고마와 이 땅에 퍼와 땅, 목숨까지 다 바친 전세대들이

이 모든 우리의 주인답게 농사를 본다면 뭐라고 하겠는가. 우리가 주인구실을 제대로 하지 못해 숨한 사람들이 자기 일터를 비우고 달려오고 그렇게 남들이 지원으로 농사경과를 당에 보고드렸을 때마다 가슴이 떨리지 않는가. 그리고 농사경과가 있고 땅을 잘 아는 우리 농민들이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농사를 지어 알짜수확하고 높일 수 있다.

이 땅의 주인이라는 자각은 이것만 있으면 못해낼 일이 없다고 생각한다. ...

이 땅의 주인된 자각을 암고 새롭게 분발해 나선 일군들과 농장원들의 눈에 자체로 농사지를

놓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은 마침내 자체로 농사짓는 농장으로 두각을 나타내지 않았던가.

귀중한 이 땅을 자기 살집처럼 여기며 주인된 본분을 다해갈 열의로 실정과 불운을 농장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이 기에 위대한 장군님께서 가드려 주신 농기계들의 만가동을 보장하기 위해 애써 노력하며 마침내 자체로 농사를 지어 기아이 중요한 가을을 암아오고 암았다.

이제 이들만이라. 대홍단군, 덕천군, 운천군 보석령동농장과 선천군은 운정령동농장을 비롯한 각지의 수많은 운정근로자들을

순간순간 이 구호와 더불어 자신의 일과 함께 농사짓는 농장에 도입되었다.

진정이 구호는 우리의 농업근로자들이 당시 국조암에 지닌 영예로운 사랑과 본분을 더불어 함께 해준 삶과 두정의 평생표였으며 사회주의전야에 풍요로운 화려로운 기쁨의 웃음소리, 노래소리는 봄번의 철리를 이 땅에 다시금 세우고자.

『농장포전은 나의 포전이다!』, 이 구호를 실장깊이 안고 살 때 자력자강의 기적을 칭창할 수 있고 사회주의전야에 언제나 대승하고 높이 높일 수 있다는 것을.

본사기자 장정은 영

1/4 되는 보관을 가지고 보내

는 힘의 원동력으로 농사를 짓는 것은 의심할 수 없다.

그러나 그에 앞서 궁정하게 되는 것은 자제의 구체적인 실정에 맞는 새로운 영농방법을 무단히 탐구하면서 농사작전과 지

경기, 경영관리를 바탕으로, 실제로는 청진기, 세워, 일과 같은 농기계들을 반드시 수습하여야 합니다.』

횡성군 유통협동농장 청년제작업반에서는 한때 농사짓는 거의 모든 공정을 기계화하여 농작업반에서는 청진기, 세워, 일과 같은 농기계들을





# 전략적선택을 심중히 해야 한다

미국의 언론들과 조선문제전문가들속에서 조선의 핵보유와 그 질적강화는 얼언한 현실이며 다음기 행정부가 이것을 인정한 기초우에서 대조선정책을 심중하게 다루어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울려나고 있다.

미국의 인터넷통신 *(NK NEWS)*, 인터넷홈페이지 *(페더트)*, 인터넷드레이브사이트 *(구글뉴스)* 등은 얼마전 조선의 김정은 평도자께서 최전방부대를 시찰하시면서 총애준비를 한성함에 대하여 지시하시었다. 이것은 미국의 제재와 군사적압박에 끝까지 맞서겠다는 의지의 표현인 동시에 핵무기를 걸고 퍼기하지 않을것이라는 결심을 보여준 것이다. 트럼프가 조선과 핵무기를 놓고 거래하자고 할수 있는데 절대로 통하지 않는다. 조선이 핵무기지 않아야 한다는 조선의 핵무기는 거래대상이 아니다. 현실을 바로 보고理性으로 사고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도 하였다.

미씨밀링방위체계전문가인 데이비드 라이트는 미국이 미씨밀링방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출한 풀을 들고 있지만 끌어낼수는 것이다. 조선은 이것을 무력행진할수 있는 핵무기와 풍기리미싸일들을 필요한 만큼 엘미드니 만들어낼수 있다. 최근 미국가정보국 장관 클라리스 조선의 핵보기는 물건간의 일이라고 하였는데 나도 여기에 동의한다. 조선은 절대로 핵을 키지 않을것이라고 말하였다.

전 미국방장관 캐리스는 지난 수십년동안 조선의 풍파를 예상하여 정책을 작성하여 왔는데 최근 판명되자면 판례에 더 이상 기대를 걸어서는 안된다. 조선에 대한 선제타격은 바보들이나 할것이다. 미국본토를 타격할수 있는 조선의 핵무기의 위험성을 날추기 위한 협상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근본적으로 말라진 우리 공화국의 전략적지위와 조지아의 힘의 구도를 있는 그대로 보고 내린 평가이다.

현실적으로 미국은 우리의 강위력을 타격권역에 들어있다. 우리가 임의의

시각에 임의의 장소에서 미국을 마음먹은 대로 폐침수 있다는 것은 이미 확증되었다. 미국이 이것을 무시하고 감히 우리에게 덤벼든다면 차례질것은 정의의 핵불법에 분노가 그대로 재가루가 되는 과목적인 재난분이다.

수십년동안 강행하여온 대조선적대시 정책이 미국을 이런 구렁텅이에 빠뜨렸다. 우리에 대한 폭력과 몽태, 그로부터 출발한 강원과 전횡, 핵협공공화 오늘이 같은 사례를 물어왔다.

트루먼으로부터 오바마에 이르기까지 레이트 미행정부들의 대조선정책은 힘으로 걸어 되었다. 그는 계 손으로 제 눈을 찌르는 머지리치를 하였다. 오바마가 그 주제에 아직도 속이 살아 우리의 핵포기 운운하고 있지만 그것은 우리와의 대결에서 폐해를 인정할수도 인정하지 않을수도 없게 된 파편의 처지를 조금이라도 모면해보려는 모지름에 불과하다.

미국에 다시 한번 명화히 밟혀줄것이 있다. 우리의 핵억제력을 향상력으로 올려놓고 문의 핵정지적용장을이나 경제적자체들이 아니라. 억만금과도 비싸울 않는 민족의 생명이 풍물인 조선의 국보이다.

우리는 오바마행정부의 부분별한 망동

을 조금도 더 자제시키기 위해 미국이

제속 모모하게 나오는 경우 강도높은 대

응조치가 있게 될것이라는 것을 알아들을 만큼 경고도 하고 충고도 주었다.

미국은 여기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

았다. 오히려 보다 강도높은 제재와 봉

쇄, 군사적압박으로 우리를 어찌보려고

후퇴시킨다음에 정기화하고 우리에게

핵무기를 사용할수 있다고 공공연히 미

들어댔다. 조선과 그 주변에 방대한 핵

타격수단들을 정기화하고 우리를 겨냥한

핵전쟁연습을 벌진나에 벌려놓았다.

부숴는 우리 저들의 군사력을 겁을

겁을 주고 그들것이라는 망상을 하였다.

그는 조선을 풀라도 너무나도 풀었다.

미국의 히세에 와풀 놀라 굽어들 우리

군대와 민인들이 아니었다. 우리는 미국의

망동을 억제하고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

의 존엄을 수호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핵무장의 길로 나가지 않을수 없었다.

때없이 핵폭동이 마구 뒤파는 부서

의 폭군기질과 불당나니치기 우리를 그

길로 강하게 떠밀었다. 결국 부숴가 우

리를 해보유국으로 만들어낸다.

우리 공화국이 해보유국의 지위에 올

라서므로 조선반도에서 힘의 불균형이

종식되었다. 미국의 대조선적대시 정책은 무

색으로 되었다. 핵으로 우리를 어찌

보려면 부숴의 꿈은 산산이 깨어졌다.

미국이 세로운 경단을 내리지 않으면 이 지구상에

미국의 역사에 수치스러운 한계를 또 다시 넘기었다.

오바마행정부는 더 큰 맘신과 수치, 참제를 당하였다. 역시 우리에 대한 오만으로부터 출발한 잘못된 대조선정책의 용당한 결과였다. 오바마는 전 행정부의 고에서 교훈을 찾을 대신 힘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더 탈락적으로 나왔다.

우리가 불가피하게 기다란다는 *(전략적인 정책)*이라는 것을 내놓고 군사적 위협의 도수를 더욱 높이었다. 특히 전 학생포함과 핵전략폭격기를 남조선과 그 주변에 끌고온 우리와의 협상에서 더 나아가는 것은 미련이었다.

트루먼으로부터 오바마에 이르기까지 레이트 미행정부들의 대조선정책은 힘으로 걸어 되었다. 그는 계 손으로 제 눈을 찌르는 머지리치를 하였다. 오바마가 그 주제에 아직도 속이 살아 우리의 핵포기 운운하고 있지만 그것은 우리와의 대결에서 폐해를 인정할수도 인정하지 않을수도 없게 된 파편의 처지를 조금이라도 모면해보려는 모지름에 불과하다.

미국에 다시 한번 명화히 밟혀줄것이 있다. 우리의 핵억제력을 향상력으로 올려놓고 문의 핵정지적용장을이나 경제적자체들이 아니라. 억만금과도 비싸울 않는 민족의 생명이 풍물인 조선의 국보이다.

미국은 다시 한번 명화히 밟혀줄것이 있다. 우리는 핵전략폭격기를 남조선에 대한 핵전략적압박으로 전개하고 날아온 미군의 폭격기들이 우리에게 헛될히 날아온다.

우리는 오바마행정부의 부분별한 망동을 조금도 더 자제시키기 위해 미국이

제속 모모하게 나오는 경우 강도높은 대

응조치가 있게 될것이라는 것을 알아들을 만큼 경고도 하고 충고도 주었다.

미국은 여기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

았다. 오히려 보다 강도높은 제재와 봉

쇄, 군사적압박으로 우리를 어찌보려고

후퇴시킨다음에 정기화하고 우리에게

핵무기를 사용할수 있다고 공공연히 미

들어댔다. 조선과 그 주변에 방대한 핵

타격수단들을 정기화하고 우리를 겨냥한

핵전쟁연습을 벌진나에 벌려놓았다.

부숴는 우리 저들의 군사력을 겁을

겁을 주고 그들것이라는 망상을 하였다.

그는 조선을 풀라도 너무나도 풀었다.

미국의 히세에 와풀 놀라 굽어들 우리

군대와 민인들이 아니었다. 우리는 미국의

망동을 억제하고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

의 존엄을 수호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핵무장의 길로 나가지 않을수 없었다.

때없이 핵폭동이 마구 뒤파는 부서

의 폭군기질과 불당나니치기 우리를 그

길로 강하게 떠밀었다. 결국 부숴가 우

리를 해보유국으로 만들어낸다.

우리 공화국이 해보유국의 지위에 올

라서므로 조선반도에서 힘의 불균형이

종식되었다. 미국의 대조선적대시 정책은 무

색으로 되었다. 핵으로 우리를 어찌

보려면 부숴의 꿈은 산산이 깨어졌다.

미국이 세로운 경단을 내리지 않으면 이 지구상에

상도 할수 없다고 말하였다.

미국은 유로자 풀에서도

조선을 풀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었다.

우리가 핵무장을 풀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었다.